

동물.
자유.
연대.

동물들의 자유는
우리의 연대로부터
시작됩니다.

2024 동물자유연대 연차보고서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2024 Annual Report

발행일	2025년 3월 24일
발행처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전화	02-2292-6337
팩스	02-2292-6339
홈페이지	www.animals.or.kr



목차

01	감사의 말
02	동물자유연대
04	달려온 25년의 기록
06	2024년, 함께 만든 변화
24	후원금 사용 내역
28	후원자 한 마디

함께한 25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의 새로운 장을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물자유연대가 25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동안 회원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지지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녹록지 않은 현실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와 정치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곧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동물자유연대의 모든 활동가들은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따라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가 열심을 다하며 개정을 이룬 야생생물법에 근거하여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종식되는 해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안에 남은 곰들에 대한 보호 방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에 발효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실행 중인데, 2027년 2월 완전 종식을 위해 정부는 차질 없는 실행을 약속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7년 2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마침내 이루고, 이후 세계 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본격적인 동물 운동의 또 다른 시작을 위해 2025년 한 해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준비하고자 합니다.

더욱 체계적인 동물운동성을 구축하고 사회를 설득할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확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10배가 넘는 농장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는 노력과 실내 동물원 폐쇄, 소싸움 퇴출, 퇴역마 문제 해결 등 매년 작년보다 더 많은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걸음은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와 돌봄, 입양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한 해에도 326마리의 동물을 구조했고 244마리의 동물에게 새가족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시민구조 지원과 풀뿌리단체 지원 등으로 함께 했습니다. 2025년은 더 많이 확대하여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손 닿지 못하는 곳까지 우리의 지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년의 연혁에 걸맞게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앞장설 것이며, 그 길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과 지지자 여러분의 손 맞잡고 가는 길이 되도록 올 한 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자유연대 대표이사 조희경



미션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윤리적* 조화

비전 인간이 관리하는 모든 동물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게 하며, 나아가 인간이 이용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동물의 수(數)와 종(種)을 줄인다.

*윤리적 조화 인간은 자아가 있는 지적 생명체로서 이웃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합니다.

*생태적 조화 인간 또한 생태계의 부분으로서 동물의 지배자가 아닌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신뢰와 책임으로 행동하는 대표 동물단체

1. 대한민국 대표 동물단체

회원 수 최다로 이미 가장 많은 시민이 지지하는 동물자유연대는 반려, 농장, 전시, 실험, 길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위해 폭넓게 활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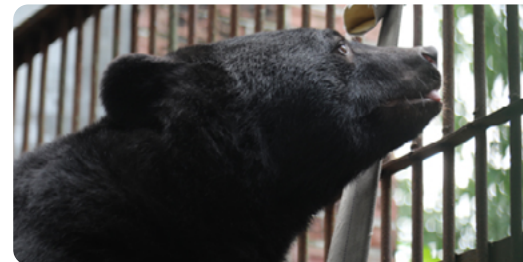
2. 동물구조, 입양 전문성

최고의 동물구조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반려동물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구조동물에게 새 삶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3. 투명한 후원금 운용

2013년부터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진행하고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공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 내역을 매월 회원별로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변화와 희망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동물 복지와 동물권 향상을 위한 지난 25년간의 노력, 그리고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나아가겠습니다.



2024년,
함께 만든 변화

구조와 보호

- 온센터 보호·입양
- 구조·학대 대응
- 지원사업

정책 및 사회변화

- 반려동물
- 동네고양이
- 농장동물
- 야생·전시동물
- 정책·입법

교육 및 연구조사

- 연구조사
- 교육·학술 활동



온센터 보호·입양

온독(개 보호소), 온캣(고양이 보호소)

온센터는 국내 최초의 동물복지형 보호소로, 구조 동물들이 생존을 넘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돌봄과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구조 직후 검진과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고,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며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전담 활동가가 배치되어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맞춤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노령과 장애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맞춤 돌봄을 내어주며, 가족을 만나거나 생을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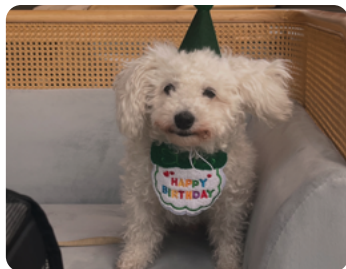
1. 선진형 보호시설

온센터는 '보호 동물도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며, 모든 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온독(ON DOG)과 온캣(ON CAT)은 각각 개와 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보호 공간을 제공합니다. 온캣은 캣스텝과 캣타워 등 수직 공간을 갖춘 실내 환경과 캣티오 및 고양이 정원을 마련하여 자연 속에서 사회화를 돕습니다. 온독은 개들의 생활공간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준비를 지원합니다.



2. 구조동물 보호와 입양

2024년에는 보령 불법 번식장, 금산 개농장, 망치 폭행 사건 등으로 구조된 196마리가 온독에 입소하였으며, 진료 및 처치, 중성화 수술을 거쳐 170마리가 국내 입양, 34마리가 해외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온캣은 2024년 한 해 동안 55마리가 입소하였으며, 남양주 사설 보호소 화재로 구조된 9마리를 포함하여 총 40마리(입양 전제 임시보호 3마리 포함)가 입양되었습니다.



3. 임시보호 프로젝트 성과

온독의 재건축 공사로 인해 일부 보호동물들의 임시 이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9개월간의 임시보호 프로젝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75마리의 보호동물이 가정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동물들의 정서적 안정감 향상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4. 맞춤형 돌봄 및 사회화 프로그램 강화

온독은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회화 교육을 도입하고, 노령견 및 환견을 위한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동물 생활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형견과 관절 질환 동물을 위한 운동 재활 치료를 도입하여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온캣은 고양이 정원을 활용한 사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교감활동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8살 이상 노령묘를 대상으로 정기 건강 검진을 시행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온독은 일일·정기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봉사자 모집 증가와 정기 봉사자 재신청률 상승으로 보호동물 복지가 증대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온캣은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초보자를 위한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정기봉사자들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6. 시민 참여형 정기 캠페인 및 대외 홍보

온센터는 시민들이 동물 보호와 입양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입양동물의 날, 결연의 날, 생일파티 등을 통해 보호동물과 시민이 교감할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3월 보령 번식장 구조견 생일파티는 입양 상담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온독과 온캣은 비건페스티벌, 박람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보호 및 입양 문화를 전파하고 온센터의 활동을 알렸습니다. '8월의 캣캉스', '온캣에 놀러오개', '고양이 소개팅' 등 시민 참여형 행사도 운영하며 입양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썼습니다.



7. 시설 및 공간 개선

온독은 재건축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엘리베이터 및 봉사자 휴게 공간을 새롭게 설치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개들의 생활 공간 또한 개선되어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온캣은 실내 캣스텝과 캣타워 등 수직 공간을 강화하고, 야외 공간에 캣티오 및 고양이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 속에서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습성에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구조·학대 대응

매년 인간에 의한 학대와 사고 위험에 처한 동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며, 한국 사회의 동물복지 향상과 보호 의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위기동물 구조활동

우리 주변에는 사고, 학대, 방치 등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위기동물 구조 활동은 이러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신속히 구조하고, 치료와 보호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위기동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조

326마리

· 재난구호계획수립에 따라 훈련을 통한 대비체계마련



사설 보호소 화재 현장 구조 활동



경기 광주시 신종 펫숍 동물 구조

2. 동물학대 대응

동물학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물학대 대응 활동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학대 가해자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동물보호법 강화 및 정책 개선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합니다.

동물학대사건 대응

18회

·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개도살 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 강화

· 설채현 수의사와 함께하는 훈육학대 라이브 토크쇼 방영



광주 광산구 개 도살 사건 대응



전남 여수시 소 방치학대 대응



지원사업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동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 구조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며, 피해 동물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설 보호소와 풀뿌리 입양 단체를 응원하고 독려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물품 제공과 긴급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3회

119 동물구조대상

개최일시 2024. 11. 11. 월 오전 11시 개최장소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주관 동물자유연대 후원 동물복지국회포럼



1. 제3회 119동물구조대상 개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영웅을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고, 그들의 노고를 널리 알림으로써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수상

소방대원

3명

소방기관

1개소

2. 풀뿌리 동물보호단체 지원

동물보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단체들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유기동물 구조, 보호, 입양, 학대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풀뿌리 동물보호단체 지원사업은 이러한 지역 기반 단체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고, 동물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동물자유연대

풀뿌리단체
민간동물보호시설
지원 사업



· 민간 동물 보호소 신고제 지원사업

선정 단체 2개소 대상
2차 현장 심사 진행 예정

· 풀뿌리 단체 입양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단체 5개소
카카오 같이가치와 함께하는
모금함 운영

3. 쓰담쓰담 위기동물 시민구조 치료비 지원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하고 구조하는 것은 용기와 책임이 필요한 일입니다. 쓰담쓰담은 이러한 시민들의 선한 행동이 지속되고, 구조한 동물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지원건

124 건

지원 동물 개체 수

개 3(마리) 고양이 121(마리)

총 지원금액

109,763,666 원



반려동물

인간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삶을 개선하고, 그들과 올바르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목표로 활동을 지속합니다. 개 식용 종식, 반려동물 영업 규제 등 산업 속에서 희생당하는 반려동물의 차별적 지위를 바로잡고자 노력합니다.

1.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2024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개 도살 및 유통이 금지되고 산업 전환이 지원됩니다. 이는 개 식용 종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으로, 동물자유연대는 법 시행과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법 통과 후 첫 복날에는 희생된 개들을 기리고, 남은 과제를 점검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조기 종식을 목표로 이행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산업 전환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며, 남아 있는 개 식용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보령 불법 번식장 업주 고발 및 철거

2024년 2월, 충남 보령의 불법 번식장에서 124마리 동물을 구조하고, 업주를 미허가 영업과 동물학대로 고발했습니다. 처벌 결과는 벌금 500만 원 구약식 처분이라는 아쉬운 판결에 그쳤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동물을 고통에 몰아넣었던 불법 번식장을 폐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번식 도구로 살아왔던 동물의 참혹한 실태를 드러내며 동물생산·판매업의 문제를 사회에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3.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펫숍> 전시

‘서울 동물보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동물생산판매업의 잔인한 실상을 나타내는 전시를 열었습니다. 번식장-경매장-펫숍으로 이어지는 동물생산판매업의 악순환을 공간 별 전시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펫숍의 폐해와 더불어 경매장 금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4. 반려동물 복제 금지

2024년 초, 한 유튜브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난자를 공여하는 ‘도너’와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킬 ‘대리모’가 반드시 필요한 동물복제는 난자 채취와 강제 임신, 출산을 반복해야 하는 동물학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만, 아직 국내에는 상업적 동물 복제를 규제할 법안이 없습니다. 이에 여론조사를 시행해 81.9%의 국민이 동물복제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펫로스를 성숙하게 극복하는 시민들의 사연을 전달하여 펫로스를 이유로 한 반려동물 복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5. 신종펫숍 금지 활동

소위 ‘신종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 펫숍의 영업 행태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파양동물 인수, 판매뿐 아니라 동물입양단체로 위장하여 지역 축제에 참여하거나 신종펫숍과의 구별법을 홍보하며 보호소로 위장하는 업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신종펫숍의 폐해를 계속 알리며, 법 개정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6. WDA 골든 독 어워즈 수상

동물자유연대는 WDA Golden Dog Awards 2024에서 한국 대표 동물단체로 선정되어 ‘골든 독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 이는 20년 이상 개 식용 종식을 위해 꾸준히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수상 상금 10만 달러 전액을 연대 단체 13곳에 균등 배분하여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동네고양이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경계에 있는 길고양이의 특별한 위치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고민합니다. 비합리적인 혐오에 맞서 길고양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 구성원 중 하나로서 동네고양이가 인정받고 자리 잡는 사회를 꿈꾸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돌봄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 ‘묘(猫)한 잡담회’ 개최

동네고양이가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체로서 사회에 자리매김할 방안을 찾고자 고민을 지속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2024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한 ‘묘한 잡담회’는 돌봄활동가 간 교류하고 연대하며 돌봄 활동을 지속할 힘을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묘한 잡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동네고양이 돌봄 과정에서 겪은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점을 논의했습니다.

2. 길고양이 학대 대응 시민 연대

2022년부터 3년간, 경상국립대 교내에서 길고양이 학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노력 대신 길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했습니다. 이에 지역 단체와 연대하여 경상국립대에 항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학교 측에 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시민 여론을 조직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길고양이 밥자리 분쟁 민원을 상시 대응하며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장동물

오로지 산업을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만 인식되며 고통받는 농장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설령 음식으로 이용되는 동물이라도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고통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공주시 폐마 목장 폐쇄 활동

2024년 10월, 공주시 불법 축사에서 굶주린 말 10여 마리와 말 사체 8구가 발견됐습니다. 소위 '폐마 목장'이라 불리며 퇴역마 처리 방편으로 이용되던 현장에서 살아남은 말을 구하기 위해 동료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16마리 말을 모두 입양처로 이동시키고 공주 폐마목장을 폐쇄했으며, 정부와 한국 마사회에 폐마 목장 전수 조사를 비롯한 퇴역마 복지 체계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2. 말 복지 입법 활동

드라마 촬영장에서 고의적인 연출 사고로 '마리아주'가 사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퇴역경주마를 비롯한 말의 처우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말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며 법제의 변화까지 이끌기 위해 기자회견, 영상 제작, 시민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산란계 케이지프리 캠페인

하루에 빵 400만 개를 판매하는 국내 최대 베이커리 기업 파리바게트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마케팅에 거액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기업을 지탱하는 산란계 복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파리바게트에 케이지프리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아직 전환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단체와의 면담을 갖고 향후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4. 소싸움 폐지 운동

2024년 1월 국가유산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시민 5,5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여론조사, 국가유산청과의 면담 등을 통해 소싸움 국가무형유산 지정 추진 중단을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소싸움 완전 중단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미배정 운동을 지속 중입니다.





야생·전시동물

동물이 각자의 습성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업적 동물전시에 반대하고 야생동물 사육 산업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시동물 복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위법 사항 모니터링과 소비 자제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으로 예정된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사육곰 구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농가 등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1. 열악한 환경의 전시 동물 처우 개선

영업 부진을 이유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시설에 동물을 방치하던 부경동물원과 아이니테마파크가 드디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니테마파크에서 동물을 매입하여 보호하기로 한 네이처파크와 소통하며 이동 과정을 모니터링했고, 사유 재산으로 치부되어 구호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전시동물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10년 넘게 강원도 동해시 호텔의 철창에 갇혀있던 원숭이를 적합한 시설로 옮기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2. 거제씨월드 폐쇄 요구

전시 시설에서 고래류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시행 후에도 거제씨월드에서는 2024년에만 두 마리 새끼 돌고래가 태어났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생후 11일 만에 숨졌으며, 거제씨월드 개장 후 지난 10년 간 사망한 고래류는 15마리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제씨월드의 동물학대를 방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제씨월드 폐쇄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사육곰 민관협의체 참석

2026년 곰 사육 산업 종식을 앞두고 농장에 남아있는 사육곰 구조를 위해 정부, 농가, 지자체 등과 함께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4차례 민관협의체에 참석했으며, 연대 단체들과도 함께 구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육곰을 구하기 위해 농가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보호처를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책·입법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과 제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장동물, 실험동물, 사육동물 등 비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 단계별 활동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복지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미흡한 정책/입법적 작업들을 보완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물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요구하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22대 총선대응

국회 동물복지 관련 의안 발의 258건을 수집 후 9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여 21대 입법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 699명에게 동물복지 관련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31명의 후보자 및 8개 정당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매니페스토 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게시함으로써 정책의 약속과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물복지 관련 정책
질의서 전달

699 명

31 후보자 8 개 정당의 회신

2. 개식용종식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및 후속입법

연대단위를 구성하여 개식용 종식 특별법 위헌 소송 대비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해 합헌 결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개식용 종식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식용의 최단 기간, 최소 희생,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특별법 위헌 가능성 검토

· 하위법령 제정 및 후속 입법 활동

· 반려동물영업 제도 개선



3. 산란계 사육환경 포장재 표시제 도입

산란계 사육환경에 대한 인지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시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카드뉴스를 통해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효과적 케이지프리 운동 및 정부 관계자 설득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식약처를 대상으로 포장재 표시제 도입 요구 및 면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산란계 사육환경 포장재 표시제 도입 요구(2025 예정)

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국회 상임위 회의록 및 관련 언론 보도, 이메일 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13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국정감사 의제화 동기부여를 위하여 앞으로도 해당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연구조사

동물을 생명체로서 존중하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물보호와 복지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와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권리와 복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각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자료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 현장 배포

동물보호관 및 시민을 위한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동물학대 및 야생동물 불법포획 실태를 고발하는 특별전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에는 법령 확인 및 고발장 작성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2. 동물복지 우수 지자체 선정 (동물복지지수 개발)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지수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개발한 지수를 토대로 2025년에는 동물복지 우수 지자체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입니다.

3. 서울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서울시 관내 동물전시업소 및 체형시설에서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동물복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 반려동물영업 담당공무원 및 영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반려동물.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이지만 이들을 이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영업장의 비윤리적인 운영실태 및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 개선을 위해 담당공무원과 영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5. 산란계 평사사육 전환 가이드라인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도 도입 후에도 산란계 농가의 동물복지축산농가 비중은 2023년 기준 25.5%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 사례 등을 바탕으로 평사사육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수평아리 도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6. 제6회 유럽 행동의학 및 동물복지수의학회 참가

지난 10월 유럽 행동의학 및 동물복지 수의학 회의에서 ‘한국 개식용 종식의 역사’와 ‘승마체험산업 실태조사’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동물복지 현황을 국제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7. 이슈리포트 기타 대응 활동

수평아리 도태 문제와 유실·유기동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동물학대 사건 판례 DB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육·학술 활동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및 동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변화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활동을 뒷받침할 심도있는 인문·사회학적 연구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물자유연대는 국내 유수의 강사진 및 대학 기관과 협력하여 양질의 전문교육을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1. 동물아카데미 운영

동물자유연대는 2023년 성공회대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로 동물권 운동을 주제로 한 ‘동물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성찰하는 강의를 운영하며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동물권 인식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2. 국내 최초 동물권 및 동물복지 석사과정 개설

동물자유연대의 지원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에 국내 최초 ‘동물권과 사회연구’ 석사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번 석사과정 개설은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권 및 동물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후원금 사용 내역

2024 수입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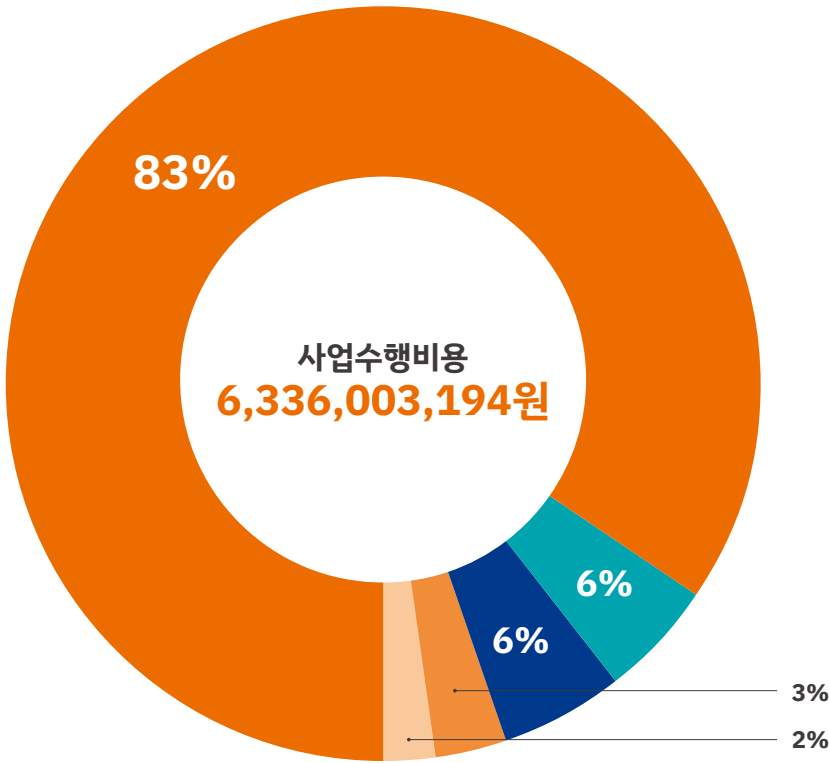
구분	금액
공익목적사업수입	10,212,712,445
기부금수익	10,168,257,898
정기후원회비	8,271,696,480
일반후원금	1,475,428,971
물품후원	306,586,478
연구후원수익	114,545,969
연구용역수익	44,454,547
공익목적사업외수익	471,743,544
굿즈판매수입	47,998,900
유형자산처분이익	6,362,637
상금수익	133,400,000
이자수익	255,906,164
외화환산이익	28,014,318
잡이익	61,525
수입합계	10,684,455,989

2024 지출

(단위: 원)

구분	금액
목적사업비용	8,392,925,463
사업수행비용	6,336,003,194
동물구호사업	5,246,632,349
캠페인사업	349,312,934
동물복지정책사업	215,550,106
부속사업	355,540,409
동물복지연구소	168,967,396
일반관리비용	391,560,498
모금비용	1,665,361,771
사업외비용(자산처분손실,잡손실외)	48,160,052
자산 취득 비용(건축 및 시설)	3,503,881,828
지출합계	11,944,967,343

2024년에 동물자유연대
사업수행비용의 83%를
동물구호활동에 사용했습니다.



● 동물구호	● 캠페인사업	● 정책
5,246,632,349 원	349,312,934 원	215,550,106 원
	● 부속사업	● 동물복지연구
	355,540,409 원	168,967,396 원

더 알아보기

QR코드를 통해 2024 동물자유연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과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확인하세요.





회원님들께 동물자유연대란?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변화의 길에는 항상 꾸준하고 묵묵히 단체를 지지해주시는 4만여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원님들에게 동물자유연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동물자유연대는 “버팀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동물은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동물자유연대가 우리와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에, 저에게 동물자유연대는 ‘버팀목’입니다.”

진은정 회원님 | 7년차



동물자유연대는 “따스운 곳”입니다.

“방송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동물자유연대를 접하며 친근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동물들을 위한 노력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안소현 회원님 | 6년차



동물자유연대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유기동물 문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게 된 계기가 동물자유연대였어요. 동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동물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께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자유연대는 저에게 ‘나의 선생님’ 같은 곳이에요.”

이현주 회원님 | 10년차



동물자유연대는 “나의 후원 첫사랑”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후원한 시민단체가 동물자유연대였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다른 단체와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원이 된 이후, 제 일상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사안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꾸준히 활동하는 동물자유연대의 모습을 보며 늘 신뢰와 기쁨을 느낍니다!”

김태후 회원님 | 12년차

동물자유연대는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 빛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백재이 회원님 | 9년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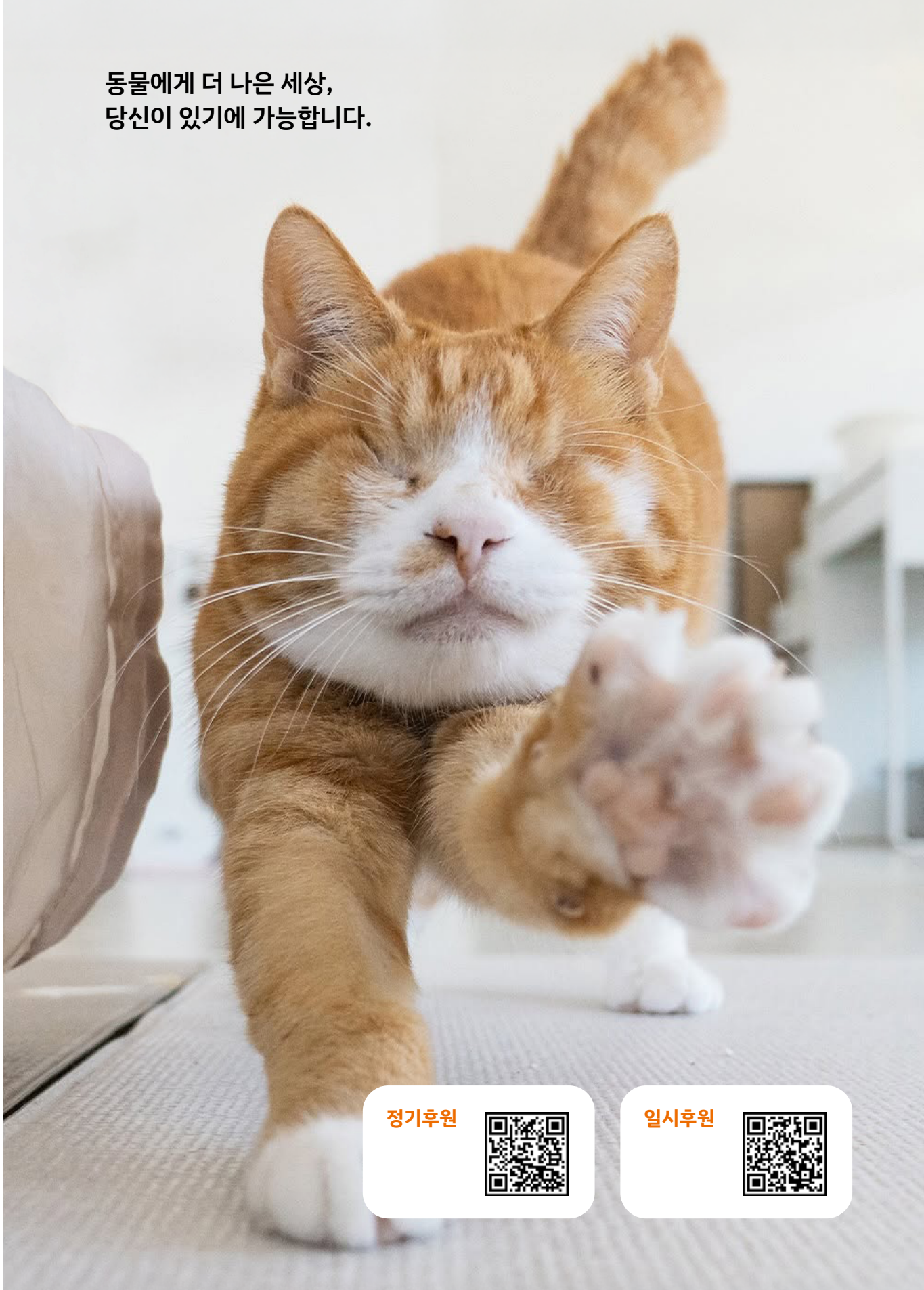


동물자유연대는 “북극성”입니다.

“과거에는 길을 찾을 때 하늘의 북극성을 지표로 삼았듯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권 운동의 선구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 또한 반려인이지만 동물과 관련된 모든 것에 깨어있거나 아는것은 아니었거든요. 동물자유연대를 통해 동물권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권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상징성 같은 단체이기에, 동물자유연대는 저에게 ‘북극성’이에요.”

김한나 회원님 | 13년차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당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02-2292-6337
운영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내선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번: 활동 및 동물정책• 2번: 학대제보• 3번: 동물입양• 4번: 후원문의

정기후원



일시후원

